

제29회 법무사시험 부동산등기법 총평

김기찬 법무사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 년까지 한 길을 달려오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라며 2023년 부동산등기법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II. 총평(제29회 시험의 특징)

1. 조문·예규·선례의 비중

(1) 올해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문은 58지문, 예규는 52지문, 선례는 40지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조문(39%), 예규(35%), 선례(26%)의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조문의 출제 비중이 늘고, 예규·선례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	출제 비중	2023년 시험
21 %	조문	39 %
51 %	예규	35 %
28 %	선례 (판례, 실무제요)	26 %
100 %	전체	100 %

(2) 조문의 비중이 크게 출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조문은 많은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며 원론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예규나 선례보다는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소한 기타 법령의 조문이 출제가 되어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느낀 문제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답지문의 유형으로는 조문 정답이 6문제(20%), 예규 정답이 12문제(40%), 선례 정답이 12문제(40%)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의 기출지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작년보다 조문의 비중은 많아졌으나 역시나 정답지문은 예규·선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

- (1) 올해 시험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이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선례나 등기실무의 내용들이 출제되었고, “물권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부담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올해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최신 예규·선례의 내용들은 내년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총평

- ①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조문의 지문이 늘고, 예규·선례의 지문이 적게 출제된 점,
- ②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점, ③ 짧은 지문이 많이 출제된 점, ④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많이 출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하락하였고, 23문제 이상을 득점(작년기준 +2)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며 더 높은 능선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심기일전하시어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찬 법무사 올림 -